



이름:

WEEK 3

Jan 13

창세기 21장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 전에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본문은 ‘()’라는 구절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이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그 ‘말씀하신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는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1절), 그리고 12절에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신 말씀을 볼 때,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경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솟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으로 불려진 그 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모리아 산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역대하 3:1),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삭의 번제기 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드러진 희생 제물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드리신 제사에까지 잇달아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역사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Jan 14

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는데, 사라의 죽음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들에게 자손은 오직 이삭 한명, 그리고 장사지내기 위한 작은 땅 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13-16절에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이라.”

창세기 24장

본장은 이삭의 결혼에 대해 말합니다. 한 사람의 결혼을 성사하는 중에, 사람도 하나님께서도 언약에 대해 매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미래를 충성을 다해 준비했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자기 책임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가운데 충성을 다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올바른 장소로 인도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주님을 실망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Jan 15

창세기 25장

본장은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를 지나 이삭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25:19).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을 때, 이삭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21절) 또한 임신한 리브가는 뱃속의 아이가 서로 싸움으로 고통을 당하자 한 일은 무엇인가요?(22절)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20절), 65세에 아이를 갖게 되고(26절) 낳을 때 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도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본장은 아브라함의 복이 정말로 이삭에게로 전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목축업을 하던 이삭을 그랄땅(블레셋)에서 농업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시작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 해에 얼마나 추수하였다고 기록되었나요?

Jan 16

창세기 27장

본장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복잡하게 꼬여있는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들이 보여준 거짓과 음모와 배신은 그 대가와 책임을 툭툭히 치르게 됩니다. 이삭은 이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야곱을 축복하여 밧단아람으로 보내지만, 수많은 세월을 약속의 아들을 잃은 채 보내야 했습니다. 리브가는 며칠이면 될 줄 알았던 아들과의 이별이 평생 다시 보지 못할 이별이 되었고, 에서와 야곱은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36절에서 에서는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고 가로채는 자'라는 부정적 의미에 딱 맞는 이름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어떤 일들의 속임을 당했나요?

창세기 28장

본장은 축복을 가로채고 복수를 피하기 위해 도망을 가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곳으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 칭한 이 곳은 어디인가요?

Jan 17

창세기 29장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아람의 한 우물에 도착했고 거기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은 조카인 야곱을 '나의 혈육'(14절)이라고 하면서 환대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을 사랑하여 7년을 수일같이 여겨 봉사했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언니 ()를 그에게 들여보냈습니다. 이튿날 야곱이 항의하자 라반은 야곱의 생애에 잊어버릴 수 없는 단어 '장자'라는 말로 레아가 먼저 시집을 가는 것이 옳다고 변명합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도 자기의 아내로 얻게 되지만, 본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 속여 왔던 야곱이, 삼촌에게 속았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와 늘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도 겸손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본장에서 레아와 라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편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식이 없는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한 일이나, 복종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 뜻을 묻는 리브가의 경건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이름과 뜻은 무엇인가요?

Jan 18

창세기 31장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3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몰래' 도망하기로 결정합니다. 삼촌 라반이 열 번이나 임금을 속여 온데다, 자신의 두 딸을 데리고 간다고 하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매우 두려워 몰래 도망하기로 했지만, 그것은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도망칠 때 하나님은 이미 라반에게 나타나 야곱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무엇이랄 말씀하셨나요? (29절)

창세기 32장

외삼촌 라반과 헤어진 야곱은 이제 그의 형인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순종하였는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현실이 매우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네게 ()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거듭 확신을 주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 5:24)